

조선어에 비추어본 프랑스어문법적의미표현의 특성

김 경 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외국어를 잘하려면 단어를 많이 아는것과 함께 외국어문법학습을 잘하여야 합니다. 외국어학습에서 문법을 무시하면 안됩니다. 힘들고 까다로와도 문법공부를 잘하여야 외국어를 능숙하게 소유할수 있습니다.》(《김정일전집》 제1권 221페이지)

외국어학습에서는 모국어와 차이나는 해당 외국어의 언어학적현상들에 대하여 깊이 연구하여 그 본질과 특성을 과학적으로 밝히고 습득자의 언어의식에 맞는 효과적인 학습방법을 찾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글에서는 조선어와의 대비속에서 프랑스어의 문법적의미표현에서의 특성들을 분석하기로 한다.

문법적의미표현에서 조선어에 비추어본 프랑스어의 특성은 무엇보다먼저 문법적의미를 표현함에 있어서 프랑스어가 분석적성격을 가진다는것이다.

프랑스어가 분석적성격을 가진다고 할 때 그것은 접사법 또는 굴절법에서와는 달리 어휘적요소는 불변형태로 쓰이고 문법적의미는 보조적단어들의 도움으로 둘이상의 요소에 분리되어 표현되는것을 말한다. 다시말하여 문법적형태가 어휘적요소와 한 단어로 어울리는것이 아니라 어휘적의미를 담당한 요소와 문법적의미를 담당한 요소가 서로 분리되어 나타난다.

예: Il est venu. 그가 왔다.

인칭 시칭

le plus grand 제일 큰

최상급

프랑스어에서 문법적의미는 단어자체에서가 아니라 단어밖에서 즉 조선어에서처럼 격어미가 아니라 전치사와 같은 보조어나 문장에서 단어가 차지하는 위치(어순)에 의하여 표현된다.

예: Un livre de Pierre (소속)

Pierre parle. (주어)

On appelle Pierre. (직접보어)

On parle de Pierre. (간접보어)

물론 프랑스어에도 하나의 형태부가 여러개의 문법적의미를 종합적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와 같은 종합적수법은 분석적수법에 비하여 매우 드물게 쓰인다.

영어나 로어에서 조동사가 기본동사의 의미를 대신하여 독자적으로 쓰일수 있지만 (He has, I don't) 프랑스어에서는 조동사의 의미론적자립성이 상대적으로 약하기때문에 이러한 쓰임이 허용되지 않는다. (≠Oui, il est)

분석적수법은 문법적의미를 표현하는 음성적변화가 종합적수법에서와는 달리 단어안

에서가 아니라 그밖에서 즉 문장의 수준에서 일어난다.

모든 언어들에서 종합적수법과 분석적수법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다같이 쓰이며 해당 언어가 종합적인가 분석적인가 하는것을 가르는 기준은 어느 수법이 더 우세하며 전형적으로 쓰이는가에 따라 상대적으로 설정된다.

문법적의미표현에서 조선어에 비한 프랑스어의 특성은 다음으로 문법적형태와 문법적의미사이의 비대칭성이 있다는것이다.

문법적형태와 문법적의미사이의 비대칭성이란 하나의 문법적형태가 여러가지 문법적의미를 표현하는것, 여러가지 의미를 담는 경우에도 한 문법적형태와 그것이 나타내는 문법적의미, 다른 문법적형태와 문법적의미사이의 대응관계가 설정되지 않으며 문법적의미의 변화가 형태변화를 전제로 하지 않는것을 말한다.

프랑스어에서 문법적형태와 문법적의미사이의 비대칭관계는 우선 하나의 문법적형태가 여러가지 문법적의미를 가지면서 다양한 문법적기능을 수행하는데서 표현된다.

예: 형태부 -e의 문법적의미 : étudiant - étudiante - 여성

Je commence - 단수 1인칭

Il commence - 단수 3인칭

Commence! - 2인칭단수 명령형

-s의 문법적의미 : étudiant - étudiants - 복수

Je finis - 단수 1인칭

Tu finis - 단수 2인칭

Dis! - 단수 2인칭 명령형

문법적형태와 문법적의미사이의 비대칭관계는 또한 하나의 문법적의미를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가지 문법적형태를 취하는데서 나타난다.

명사, 형용사의 복수표식은 형태부 -s, 혹은 -x이다.

예: un livre - des livres un chapeau - des chapeaux

동사의 1인칭단수의미는 -e, -s, -x 등 동사에 따라 각이하다.

예: Je parle / Je finis / Je peux

직업이나 신분을 나타내는 일부 명사들에서는 굴절과 교착의 수법이 아니라 보조적 단어를 리용하는 분석적수법을 쓰기도 한다. (une femme professeur) 문법적성범주를 나타내기 위하여 어느 수법을 어떻게 쓰는가 하는것은 프랑스사람들의 언어의식에 역사적으로 고착된것으로서 단어에 따라 다르다.

문법적형태와 의미사이의 비대칭관계는 또한 문법적의미변화가 형태변화를 필수적인 것으로 하지 않는데서 나타난다.

프랑스어에서는 품사바꿈의 경우 단어의 문장론적기능이 달라져도 단어의 형태는 변하지 않는다.

예 : un frère - un pays frère une cerise - ruban cerise

프랑스어문법적형태의 이러한 특성에 비추어볼 때 조선어는 상대적으로 문법적의미와 문법적형태가 일치하며 문법적의미는 단의적이라고 할수 있다.

문법적의미표현에서 조선어에 비한 프랑스어의 특성은 다음으로 같은 문법적의미가 진술과정에 문장의 매개 구성요소에서 여러번 반복되어 나타난다는것이다.

프랑스어에서 문법적의미는 단어 또는 단어결합에서 의무적으로 반복되면서 해당하는 문법적형태를 취하고 나타난다. 이때 뒤에 오는 문법적형태들의 정보전달기능은 없어진다.

우선 명사와 형용사의 성, 수일치가 반복되어 나타난다.

예: les spacieuses chambres luxurieuses très claires 밝고 넓으며 화려한 방들

우의 실례에서 성의 문법적표식은 3회, 복수의 문법적표식은 5회 반복되어 나타났다. 이때 성, 수형태는 의미적기능은 없고 다만 그가 규정하는 명사와의 단어결합적연계를 실현하여주는 형식구조적기능만을 수행한다.

프랑스어에서 문법적형태는 문장론적기능의 표식으로 되는것이 아니라 다만 문장론적결합체의 한 구성요소로 될뿐이다. 그러나 조선어에서는 성범주의 문법적표식은 없고 복수의 문법적형태는 체언적단위의 제일 마지막 단어에서 단 한번만 나타난다.

또한 동사와 대명사의 일치가 반복되어 나타난다.

프랑스어에서 보조적대명사는 동사의 문법적범주(성, 수, 인칭)를 보충적으로 나타낸다.

예: J'achète un roman.

일반적으로 조선어에서는 동사가 언어행위속에 들어가서 구체적인 대상과 결합될 때에만 그 의미가 확증된다. 그러나 프랑스어동사는 인칭변화형태 하나만으로도 누가 언제 그 행동을 수행했는가가 명백히 나타난다.(allons-우리가 간다 vont-그들이 간다)

프랑스어에서는 문장론적전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어가 필수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프랑스어동사의 성, 수 인칭범주는 주어와의 문장론적연계를 실현하는 형식적기능을 수행하며 따라서 성, 수의 문법적의미는 특수한 문맥조건에서만 나타난다.

예: Cette lettre, je l'ai prise, je l'ai lue. (나는 그 편지를 집어서 (그것을) 읽었다.)

또한 비교의 최상급에서 정관사의 일치가 반복되어 나타난다.

예: les usines les plus modernes (가장 현대적인 공장들)

le fleuve le plus long (제일 긴 강)

우의 실례에서 관사 《les, le》가 명사의 성, 수와 일치하면서 반복되었다.

또한 보어부문 또는 상황부문에서 접속법이 반복되어 쓰인다.

예: Son ami désire qu'il parte pour qu'il trouve le métier.

(그의 친구는 그가 직업을 구하려 떠나기를 바란다.)

그러나 이 경우 조선어에서는 동사의 문법적의미가 술어동사의 종결형에서만 1회적으로 나타나며 이음형동사의 문법적의미는 종결형의 문법적의미에 의존되고 식과 존칭의 의미만이 이음형에서 나타난다.

예: 아버지는 저녁을 드시고 떠나가셨다. (존칭반복)

또한 대명사가 반복되어 쓰인다.

프랑스어에서는 조선어에서 극히 불필요하다고 느껴지는 경우에도 결합보어인칭대명사를 반드시 반복하는 진술구성상특성을 가진다.

비교: 조선어: 어제 돌려주었어.

프랑스어: Je le lui ai rendu hier.(나는, 그것을, 그에게)

특히 보조적대명사의 동어반복적인 쓰임은 의문문에서 전형적이다.

예: Paul vient-il?

Son enfant est-il petit?

문법적의미표현에서 조선어에 비한 프랑스어의 특성은 다음으로 문법적의미표현의 형태론적불규칙성이다.

형태론적불규칙성이란 문법적범주가 규칙성을 따르지 않고 일부 단어에서 불규칙적으로 표현되는것을 말한다. 다시말하여 많은 경우 프랑스어단어들은 형태체계의 규칙적인 규범을 벗어나 표현되지 않거나 불규칙성을 띤다.

우선 일부 형용사에서 성범주의 문법적형태가 구별되지 않는다.

례: rouge, fidèle, brave, pauvre

그리고 문법적의미구별이 글말인가 입말인가에 따라 나타날수도 있고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례: bleu - bleue, né - née

또한 명사와 형용사들에서 성범주를 표현하는 문법적형태조성수법과 수단이 다종다양하여 많은 혼동을 초래한다.

례: heureux - heureuse long - longue enchanteur - enchanteresse

또한 같은 동사에서도 시칭에 따라 어간이 각이한 형태로 변한다.

례: être-suis-est-sommes-êtes-sont -fut-fût-fusse-furent-soit-soyons

avoir-ai-a--ont-eut-eûmes-eurent-aurai-aie-ayons-eusse-eût

문법적의미표현에서 조선어에 비추어본 프랑스어의 특성은 다음으로 입말과 글말사이에 큰 차이가 존재한다는것이다.

일반적으로 모든 언어들에서 입말과 글말형태의 차이가 존재하는것은 보편적인 현상이지만 프랑스어에서는 그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기때문에 입말과 글말에 따르는 두개의 서로 다른 형태의 체계가 존재한다고 보는 주장까지 있다. 프랑스어에서 마지막글자는 보통 발음되지 않으며 따라서 입말에서는 글말에서 시각적으로 나타나는 여러 형태론적요소들이 없어진다.

글말에서는 문법적의미가 형태를 통하여 나타나지만 입말에서는 그것이 없어진다. 마지막 글자는 보통 어음적으로 발음되지 않으며 입말에서는 글말에서 시각적으로 나타나는 여러 형태론적요소들이 없어지는것으로 하여 성, 수, 인칭범주표현에서 입말과 글말사이에 많은 차이가 있게 된다.

례: Cet allié est parti.

Cette alliée est partie.

우의 문장에서 성표식의 문법적구별이 청각적으로는 안겨오지 않으며 따라서 입말에서는 그 차이를 식별할수 없다. 그러나 《Ils ont parlé》에서는 성의 문법적표식은 해소되었으나 수의 문법적표식은 련음에 의하여 포착된다.

성, 수범주의 쓰임빈도수를 품사별에 따라 분석해본데 의하면 명사에서는 성의 문법적형태가 보존되지만 수의 문법적형태는 중화되며 반대로 동사나 규정사에서는 성형태가 중화되고 수표식이 상대적으로 보존된다는것을 알수 있었다.

례: 명사: un écolier - une écolière(o) - des écoliers(ø)

un étudiant - une étudiante(o) - des étudiants(ø)

동사: il fait - ils font (수표식)

동사변화에서 녀성형태나 남성형태가 단수와 복수에서 발음이 다 같은것으로 하여

수범주의 의미는 입말에서 나타나지 않는다.(1부류동사일 때) 그러나 문장의 주어가 명사인 경우에는 성, 수범주가 관사에 의하여, 대명사인 경우에는 문맥을 통하여 식별된다. 그러므로 매개 단어 또는 단어결합들은 글말에서는 의무적으로 문법적형태를 취하지만 입말에서는 매개 요소의 성, 수가운데서 어느 하나의 표식만이 포착된다.

례: Les étudiantes sont présentes.

수 성 수 성

동사인 경우 입말과 글말의 차이는 복수표식수단의 차이에서도 나타난다. 즉 글말에서는 어미굴절로써 복수를 나타내지만 입말에서는 어간의 차이가 복수표식으로 된다.

례: Je prends - Ils prennent / [prɑ̃] - [prɛn]

Je rends - Ils rendent / [rɑ̃] - [rɑ̃d]

문장론적관계표현에서 입말과 글말을 대비할 때 글말에서 수범주는 정보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며 입말에서는 성범주가 수보다 중요한 역할을 한다.

례: 글말: une grande ambition : d→[t]

입말: [grātābisjō]

글말: un grand ours : d→[t]

입말: [grāturs]

모든 문법적의미가 토에 의하여 정확히 표현되는 조선어에서는 입말과 글말에 따르는 이러한 차이가 없다.

문법적의미표현에서 조선어에 비추어본 프랑스어의 특성은 다음으로 프랑스어문법적형태가 단어조성적수단으로 쓰인다는것이다.

프랑스어단어는 자기의 문법적형태변화를 통해 문장론적기능만 달리하는것이 아니라 많은 경우 어휘적의미의 변화를 초래한다.

프랑스어에서는 물질명사, 추상명사들이 때때로 복수형태를 취하면서 어휘적의미의 변화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프랑스어가 상대적으로 어휘수가 적기때문에 단어들의 2차적기능으로 어휘의 빈약성을 보충하는 관계에 있음을 말해준다.

우선 일부 단어들이 본래의 어휘적의미를 완전히 상실하는 경우가 있다.

례: le gage - les gages (담보 - 봉급)

la vacance - les vacances (빈자리 - 방학)

la toilette - les toilettes (화장 - 변소)

또한 어휘적의미를 완전히 상실하지는 않고 편관된 물질, 대상, 부류를 가리키는 경우가 있다.

례: la viande - des viandes (고기 - 고기료리)

le marbre - les marbres (대리석 - 대리석제품)

une pomme - des pommes (사과 - 사과무지)

조선어에서는 프랑스어명사에서 단수와 복수의 이러한 대립관계를 문법적형태에 의해서가 아니라 어휘적수단으로 표현한다.

(신발-신발류, 사과-사과무지)

또한 일부 프랑스어명사들은 남성인가 여성인가 하는 의미구별적기능을 수행하므로 단어조성적수단으로 된다.

례: le livre – la livre (책 – 파운드) le moral – la moral (사기 – 도덕)

le physique – la physique (육체 – 물리) le poste – la poste (초소 – 우편국)

문법적의미표현에서 조선어에 비한 프랑스어의 특성은 다음으로 프랑스어문법적형태가 2차적기능으로 문법적의미를 표현한다는것이다.

조선어와 대비할 때 프랑스어문법적의미표현에서는 많은 경우 문법적의미가 문법적형태의 2차적기능을 통하여 표현된다.

우선 추상명사들이 복수로 쓰이며 구체명사로 될수 있으며 자동사들이 타동사로 쓰인다.

례: l'honneur – les honneurs 명예 → 레식

monter en voiture – monter une valise 자동차 → 타동사

또한 추상명사들이 형용사나 부사를 대신하여 규정어로 쓰인다.

례: homme d'esprit = homme habile

marcher en silence = marcher silencieusement

또한 일부 구체명사들도 2차적기능에서 본래의 어휘적의미를 상실하고 관계적의미만을 나타낸다.

례: écouter d'une oreille attentive= attentivement (주의깊게) 귀담아듣다

또한 형용사가 기능을 확대하여 부사처럼 상황어의 기능으로 쓰인다.

례: s'habiller pratique 간편하게 입다

parler doux 부드럽게 말하다

조선어에서는 형용사가 상황어의 기능에서 쓰이려면 부사적덧붙이가 붙어야 한다.

례: 부드러운 → 부드럽게

또한 시칭형태들이 2차적기능에서 쓰인다.

프랑스어동사의 현재시칭은 일반적인 진리, 속담, 법칙 등에서 절대적인 현재시칭으로 쓰이며(La terre tourne. 지구는 돈다.) 구체적인 언어장면에서 미래나 과거시칭을 대신하기도 한다.

례: Il va demain à la campagne. (그는 래일 농촌으로 갈것이다.)

또한 법형태가 2차적기능에서 쓰인다.

례: Un peu plus et il était mort. = il serait mort. (조금만 더했다면 죽었을것이다.) (가정)

S'il faisait beau, nous serions allés à la pique-nique. (날씨가 좋았으면 원족갔을걸.)(조건)

물론 조선어에서도 문법적형태들이 2차적기능에서 쓰이는 경우가 있지만 프랑스어에 비하여 매우 적게 쓰인다.

우리는 프랑스어의 언어구조와 문법적의미표현수단과 수법들, 언어사용규범을 비롯한 언어실천적인 문제들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키고 그 성과를 외국어교육에 구현함으로써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과학교육중시사상을 철저히 관철하는데 적극 이바지해나가야 할것이다.

실마리어 프랑스어, 문법적의미표현, 문법적형태